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순만*, 백진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 박사과정*,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Soon-Man, Song*, Jina Paik**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5차년도(2014)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 적합한 2,03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변수간의 위계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적응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는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부모방임, 학교생활적응, 자아정체성,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Data from 5th year(2014)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KCYPS) on 2035 nation-wide second year middle school students was analyzed by utilizing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first, parents' neglect had a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self-identity,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Seco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mproved with their self-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included as mediating effects. Third,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as partly mediated by the effects of subject's self-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the need for program development to enhance adolescents' self-identity,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was suggested.

Key Words : Parents' Neglect, School Adjustment, Self-Identity,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Received 17 August 2016, Revised 19 Septem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Jina Paik (Dept. of Social Welfare)
Email: jpaik1@hanafos.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과 폭력, 집단따돌림, 장기결석, 가출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교사나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규범을 잘 이해함으로써 환경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적극적 과정을 의미한다[1]. 학교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관계망을 확장시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회화의 주요 학습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이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응과 사회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학교부적응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실패나 비행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적인 발달과정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학벌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무한 경쟁의 압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성적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거나 심리적 공황과 자신감 저하를 경험함으로써 절망과 불행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2].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며, 교사나 또래집단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규범준수 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학업 중단이나 자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3].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정체성의 혼란과 과중한 스트레스,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활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도전과제이다. 만족스런 학교생활의 경험은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구축과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성장과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경쟁적 교육 환경에서 청소년의 일탈과 좌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관심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및 정책적 대안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들[1,3,4]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은 가정환경이며, 특히 부모의 학대나 방임을 포함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 단계에 놓여 있는 청소년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혼란을 경험하고, 이상적인 가치와 현실 적용 사이에서 갈등적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아직 명확한 목표의식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나 학교로부터 받는 과도한 기대와 압력으로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래관계와의 경쟁과 고립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부모의 지지와 애착적인 양육태도는 정서적 불안정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해준다. 특히 부모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지지는 자녀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 원만한 대인관계 의식 등을 습득케 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자녀는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를 모방하고 이러한 모방경험을 통해 학교에서의 생활태도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5]. 반면에 부모가 자녀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자아가 불안정한 청소년들은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2].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와 상호소통 부재, 부모의 지도 결여는 청소년의 우울이나 심리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공격성과 대인관계 회피 등의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져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부모방임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유급률이 높고 성적 불량이나 학교규칙 위반 등의 부적응을 경험하거나, 주변에 대한 탐색의 지가 감소되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대처 능력을 방해받고 있다는 연구결과[3,6]도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나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7].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에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보호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자신감이나 자아통제력과 같은 자

아요인이 정제되고 정서조절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애착관계 부재와 자녀양육 지원의 결핍은 자녀의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8]. 이와 관련하여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거나[7],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9]. 또한 부모의 방임적인 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중의 하나이다. 부모의 자율적이고 애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형성에 긍정적이고 촉진적인 작용을 하는데 반해, 비일관적이고 방치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아정체성의 형성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0]. 부모방임은 성인과 아동 사이의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과 현실적응의 혼란 속에서, 자신에게 여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와의 동일시와 모방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11,12]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편, 삶의 만족도와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부모의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자아통합과 정체성을 확립한 청소년은 보다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학교규칙의 준수와 적극적인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청소년의 자신감이 상실되고 소외감과 외로움 등의 정서적 불안정에 노출되며, 삶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모의 지도와 애정이 결핍되어 있어도 가족 외 다른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주어진 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처럼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

로서의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역할이 중요하게 예측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단순히 학교라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의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의미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과 원만한 사회관계의 구축,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탄력적인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연구주제라는 점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실천적 대안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주목하여 본 연구는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작용하는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방임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3)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5차년도(2014) 자료를 활용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중 2학년 학생 중 본 연구에 적합한 2,03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학생 1,033명(50.8%), 여학생 1,002명(49.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용돈은 8만원 이상을 받는 학생이 726명(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 4만원~6만원이 626명(30.8%), 4만원 이하가 446명(21.9%)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986명(48.5%),

고졸 이하가 817명(40.1%)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793명(39.0%), 고졸 이하는 1,046명(51.4%)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기능/장치기계종사자가 474명(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관리 사무종사자가 453명(22.3%), 농업, 어업/숙련종사자는 66명(3.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서비스 판매자가 468명(23.0%)이고 다음으로 전문가/군인이 308명(15.1%), 농업/어업/숙련종사자가 79명(3.9%)으로 나타났다. 가구 연소득은 4,800만원~6,000만원이 444명(2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400만원~3,600만원이 438명(21.5%), 6000만원 이상이 21.0%, 2,400만원 이하 280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형편에 대해서는 다수의 응답자(1,280명, 62.9%)가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보다 낮은 '하'로 평가하는 비율이 19.7%(401명), '상'은 354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방임

부모방임 척도는 허묘연[13]과 김세원[14]이 개발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작성한 문항을 활용했다. 문항구성은 '부모님께서 부모님 관련된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있게 물어 보신다', '부모님께서 내 침구류나 내 몸을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아프면 부모님께서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의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타당도가 0.4 이하 문항인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부모님께서 관심있게 물어 보신다'를 제외한 총 3문항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4점 척도이며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방임 정도가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부모방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0.764이다.

2.2.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민병수[15]가 개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학교행사와 관련된 5문항을 제외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

관계 및 교사관계의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급당번,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내 짝이 준비물을 안 해 왔을 때 빌려주거나 함께 본다',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타당도가 0.4 이하인 '계단과 복도를 다닐 때 조용히 뛰지 않고 다닌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지금 선생님께서 내년에도 담임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의 3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4점 척도로서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졌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0.859이다.

2.2.3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 척도는 송연옥[16]의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8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문항구성은 '나는 삶의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있다', '한 가지 일에 나는 몰두하지 못한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타당도가 0.4 이하인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으며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 쉽다'를 제외한 7문항을 분석하였으며, '나는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놓고 있다', '계획한 대로 나는 끝까지 일을 실행한다', '좋은 생각을 주기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 행동한다' 등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4점 척도이며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이 잘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아정체성의 Cronbach's α 값은 0.660으로 나타났다.

2.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한국청소년 발달지표개발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17]으로, 문항구성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별로 걱정거리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삶은 행복하다'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서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청소년

년의 삶의 만족도의 Cronbach's α 값은 0.779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방임, 자아정체성,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3단계방법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독립변수인 부모방임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매개변수인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부모방임은 평균 1.726 ± 0.505 , 학교생활적응은 평균 2.967 ± 0.357 , 자아정체성은 평균 2.726 ± 0.46 , 삶의 만족도는 2.801 ± 0.588 로 나타났다. 또한 첨도가 절대값 3을 넘지 않고, 왜도가 절대값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 모형은 정규분포곡선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부모방임, 자아정체성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표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청소년의 부모방임과 자아정체성($r = -.274, p < .01$), 삶의 만족도($r = -.269, p < .01$) 및 학교생활적응($r = -.438, p < .01$)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며, 모두 부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과 학교생활적응($r = -.443, p < .01$)은 약간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r = .321, p < .01$)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r = .315, p < .01$)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Parents' neglect	Self-identity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Parents' neglect	1			
Self-identity	-.274**	1		
Life satisfaction	-.269**	.321**	1	
School adjustment	-.438**	.443**	.315**	1

** $p < .01$

3.2 부모방임, 자아정체성,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방임, 자아정체성,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용돈, 연소득, 주관적 경제상태)와 부모방임 변수, 자아정체성 변수, 삶의 만족도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먼저 Model 1에서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부모방임 변수를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Model 2의 변수를 통제한 후 자아정체성 변수를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Model 4에서는 Model 3의 변수를 통제한 후 삶의 만족도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s' neglect	2,035	1.00	4.00	1.726	.505	.071	-.421
Self-identity	2,035	1.00	4.00	2.726	.461	.192	.223
Life satisfaction	2,035	1.00	4.00	2.801	.588	.102	.120
School adjustment	2,035	1.15	4.00	2.967	.357	.180	.769

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각 변인별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델 1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월 평균 용돈, 연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등을 투입하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09, p < .001$).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방임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한 분석을 통해 여자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더 잘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18]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청소년의 월 평균 용돈과 가구의 연소득 및 주관적 경제상태는 학교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beta = -.07, p < .01$)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 투입한 독립변수인 부모방임 변수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방임의 정도가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2, p < .001$).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무관심한 경우 청소년은 학습활동이 부진해지고, 교우나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과 마찰을 경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모델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설명력은 모델 1에 비해 16.4%($F = 73.248, p < .001$)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방임이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델 3에서 자아정체성의 변수가 추가되면서, 모델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부모방임($\beta = -.33, p < .001$) 변수의 영향력은 약간 낮아졌다. 자아정체성 변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자아정체성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정체성이 높으면 학교생활적응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 p < .001$). 이는 청소년이 부모방임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 3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모델 2에 비해 8.8%($F = 102.123, p < .001$) 증가하였다.

모델 4에서 삶의 만족도 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모델 3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부모방임과 자아정체성의 영향력은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31, p < .001, \beta = .31, p < .001$).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높으면 부모방임이나 자아정체성의 정도와는 별개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1.2%($F = 98.067, p < .001$)로 삶의 만족도가 청

<Table 3>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Self-Identity, Life Satisfaction on School Adjustm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6 ***	-.09	-3.93	-.05 **	-.07	-3.39	-.06 ***	-.09	-4.56	-.07	-.09	-5.00 ***
Pin money	.00	.00	.37	.01	.02	1.19	.00	.01	.67	.00	.01	.63
Annual income	.01	.04	1.82	.01	.04	1.67	.00	.01	.25	.00	.01	.54
Subjective economic status 1	.09 **	.10	3.05	.01	.01	.37	-.01	-.01	-1.19	-.02	-.03	-.97
Subjective economic status 2	-.01	-.02	-.48	-.03	-.04	-1.58	-.03	-.04	-1.56	-.04	-.06	-2.22
Parents' neglect				-.30 ***	-.42	-20.30	-.24 ***	-.33	-16.78	-.23 ***	-.31	-15.76
Self-identity							.30 ***	.34	17.13	.27 ***	.31	14.99
Life satisfaction										.08 ***	.13	6.09
F		15.096***			73.248***			102.123***			98.067***	
R ²		0.044			0.208			0.296			0.312	
Adjusted R ²		0.041			0.206			0.293			0.309	
Durbin-watson	2.025											

*p<.05, **p<.01, *** p<.001, Gender(Man:1, Woman:0), Economics 1(Lower:1, Higher/Medium:0)

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분산팽창지수(VIF)는 절대 값 10이하를 보이고 있으며,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는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Baron & Kenny[19]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이 매개변수인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한 후, 부모방임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각각 설명할 것이다.

3.3.1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School Adjustment in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Path	B	β	t	F	R ²	adjusted R ²
Parents' neglect →Self-identity	-0.19 ***	-0.23	-10.399	108.14 ***	0.051	0.050
Parents' neglect → School adjustment	-0.27	-0.38	-18.30 ***	334.86 ***	0.141	0.141
Parents' neglect, Self-identity → School adjustment	-0.20	-0.29	-15.01 ***	398.14 ***	0.282	0.281
	0.34	0.38	19.91 ***			

***p<.001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2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4>의 1단계에서 부모방임은 자아정체성에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3, p<.001$), 매개변수인 자아정체성에 대한 부모방임의 설명력은 5.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부적적인 영향이 나타났다($\beta=-.38, p<.001$). 3단계에서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독립변수인 부모방임과 매개변수인 자아정체성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은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성으로 인해 영향력이 2단계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으며($\beta=-.29, p<.001$), 학교생활적응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검증되었고($\beta=.38, p<.001$), 이를 통해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정체성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의 설명력은 28.2%로 나타났고, 이러한 단계별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방임이 자아정체성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3.3.2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Table 5>는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1단계에서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22, p<.001$),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방임의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eta=-.38, p<.001$). 3단계는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독립변수인 부모방임과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2단계의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은 3단계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beta=-.32, p<.001$),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beta=.25, p<.001$). 3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0.2%로 나타났으며, 2단계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방임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낮은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적응력을 저해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학교생활적응력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방임의 영향이 2단계와 비교해 3단계에서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학교생활적응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고 있고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는 부모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Table 5>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School Adjustment in Medi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Path	B	β	t	F	R ²	adjusted R ²
Parents' neglect→Life satisfaction	-0.25	-0.22	-9.96***	99.123***	0.046	0.046
Parents' neglect→School adjustment	-0.27	-0.38	-18.30***	334.86***	0.141	0.141
Parents' neglect, Lif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0.23	-0.32	-15.86***	256.61***	0.202	0.201
	0.16	0.25	12.38***			

***p<.001

4.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는 어떤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방임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교육 및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무관심하게 방치되는 경우, 청소년들은 학습 활동이나 학교규칙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고, 교사관계

나 교우관계 등 학교에서의 원만한 관계형성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부모의 지지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교생활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20], 친구나 교사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쳐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고, 학교생활적응력을 높게 한다는 선행연구[4]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21,22], 특히 방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방임의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3].

둘째,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고 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부모의 적절한 지도와 애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신감도 상실되고 나아가 일상이 불만스러우며 삶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자아요인이 높아지고, 문제행동과 우울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24]도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들은 보다 공고하고 통합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데 반해, 가족관계가 소원하고 갈등적인 경우에는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자아상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10].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정서적/사회적 욕구를 도외시함으로써 자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을 경험하게 하여 다양한 인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6]. 혼란스런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정상적인 인격 성장이나 발달을 위해 필요한 부모의 지원과 보살핌의 부재는 자녀가 스스로를 낮은 존재로 인식케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자아정체성은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 성장에 필요한 애정과 보호, 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은 학업활동의 수행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빚게 됨으로써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부모에게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아정체성을 확립한 청소년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학업활동에 참여하고,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개방성을 보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정체성의 증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아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 선행연구[27,28]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넷째,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모방임에 노출되어 있어도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어려운 환경에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처한 가정환경과는 별개로 일상적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 활동과 교사들의 상담 및 지도, 친구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29].

아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대인관계의 훈련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력을 키우는 중요한 장이다[1]. 이런 점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주로 부모방임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방치되는 환경에서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 요인의 중요성을 밝혀내

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을 위해 중2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에 조사했던 패널자료의 활용에 따른 다양한 변수 구성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분석적인 설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지지 및 또래관계에 대한 논의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나타나는 성별 차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적 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활동과 같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 등이 포함된 보다 심층적인 설명이 보완되어야 하며,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 학교생활적응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정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소외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지원 제공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H. M. Lee,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hips among family healthiness,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Ph. D.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2013.
- [2] O. S. Cho · J. Paik,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sexual-materials addiction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4, pp. 349-356, 2014.
- [3] R. E. Clifton · H. L. Yang, "The effects of exposure to neglect on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youth activity," *Social Science Institute*. Vol. 39, No. 1, pp.1-27, 2015.
- [4] K. H. Jeon · S. Song, "A process by which social capital inside and outside of a family affects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 Welfare, Vol. 18, No. 1, pp. 143-165, 2013.
- [5] J. U. Kim · J. H. Kim,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 covert narcissism,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1041-1054, 2014.
- [6] K. A. Kendall-Tackett · J. Eckenrode, "The effects of neglec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disciplinary proble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Abuse and Neglect*, Vol. 20, No. 3, pp. 161-169, 1996.
- [7] M. Sihm · S. H. Jeon · M. S. Yoo,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s,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Korea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33, No. 1, pp. 81-92, 2010.
- [8] J. Paik,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453-461, 2015.
- [9] Y. K. Choi · S. M. Yoo, "Effects of parental environment, ego-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Vol. 9, pp. 125-149, 2014.
- [10] E. H. Lee · S. Y. Jeong, "Ego identity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7, No. 2, pp. 213-239, 2006.
- [11] M. S. Lee, "A review on the social-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prospects for positive development for youth at-risk in Korea," *Asian Forum for Corrections*, Vol. 5, No. 1, pp. 167-194, 2011.
- [12] J. H. Go, "The effects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ego-resilienc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the university entrants, Ho 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2.
- [13] M. Y. Huh,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0.
- [14] S. W.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15] B. S. Min,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1991.
- [16] H. O. Song,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s ego-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08.
- [17] S. Y. Kim · J. Y. Lim · S. O. Kim · S. H. Park · S. R. Yu · J. Y. Choi · G. Y. Lee,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Survey 1: Indicators measure the results of verification,"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2006
- [18] M. R. Song · J.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neglect and children's ego resilience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Soon Chun Hyang the General of Arts and Sciences*, Vol. 29, No. 1, pp. 219-244, 2011.
- [19] R. M. Baron ·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5, No. 6, pp. 1173-1182, 1986.
- [20] E. J. Cho,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who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1, No. 1, pp. 17-26, 2013.
- [21] M. S.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97-203, 2015.
- [22] C. O. Jang,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1-126, 2015.
- [23] H. J. Park · N. M. Hong · I. J. Chung, "Mediating Effects of Parent, Teacher and Peer Attachment in the Influence of neglect and Abus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6, No. 4, pp. 319-346, 2014.

- [24] S. Y. Kweon, "Causal relations among perceived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Journal of Secondary Education, Vol. 56, No. 2, pp. 93-118, 2008.
- [25] K. Y. Lee, "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 effect of level of income and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0, No. 10, pp. 67-76, 2002.
- [26] A. Okun · J. C. Parker · A. A. Levendosky, "Distinct and interactive contributions of physical abuse,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negative life events to children'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6, pp. 77-87, 1994.
- [27] T. D. David · R. L. Owen, "Generalized self-efficacy, coping, and self-esteem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or chronic illnesses," Children's Health Care, Vol. 37, pp. 293-315, 2008.
- [28] N. Yoon · N. Shin,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expectations,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chool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5, No. 3, pp. 157-176, 2014.
- [29] J. Y. Song · M. J. Park, "The influence of abuse from parents on adolescent in school life adapt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Youth Culture Publishes Forum, Vol. 43, pp. 58-84, 2015.

송 순 만(Song, Soon Man)



- 2008년 2월 : 명지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0년 2월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0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관심분야 : 가족, 청소년, 노인
- E-Mail : sm200401@hanmail.net

백 진 아(Paik, Jina)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 198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 사회학박사
- 2006년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